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82호 (2015-14) 발행일 : 2015. 05. 25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공공영역 복지전달체계에서 사례관리가 도입되면서 복지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도 통합적 자원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

지역사회 단위의 체계화, 표준화된 복지자원 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 정보 이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복지자원 통합DB의 구축 이후 복지자원 대비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개선을 요함

그간 축적된 자원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조 및 사용 환경 진단 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된 복지자원 통합DB는 제공주체 중복 제한, 자원분류체계 개편, 제공서비스명 도입, Stock 관리 기능 도입, 커뮤니티 기능 등을 도입하였음

복지자원의 관리 표준화 이후,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보유한 정보의 적극적 공개가 필요함



정해식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 1. 사례관리, 지역사회와 복지자원

- 2008년 공공영역 복지전달체계에서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도입되면서, 복지자원의 관리 역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sup>1)</sup>

○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처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복지 욕구의 다변화, 복지의 지방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이 각기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사례관리에 방점이 찍히고 있음

1) 우리나라 복지행정 단위에서 희망복지지원단(2012년 4월부터 설치, 2008년부터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이 도입된 바 있음)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드림스타트 사업단(2007년부터 시작)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 때 사각지대는 서비스 대상이 됨에도 관련된 서비스 정보를 얻지 못하여 발생하거나, 각종 복지 서비스가 규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전자의 문제는 각종 복지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일부 해결 가능함

○ 서비스 수급 자격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처로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여러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복지자원을 만들어내기도 해야 하는 상황임

- 본질적 의미에서 사례관리 수행 과정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 및 서비스 수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공적복지 영역에서 이러한 조정 기능은 작동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복지 영역을 이용하게 됨
- 사례관리에서 대상자에게 공적복지 및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조정 ·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활한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공공 ·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민간복지 영역에서도 필요한 서비스가 없을 때는 새롭게 서비스를 기획해야 하며, 현재는 이에 소요 되는 자원을 민간영역에서 개발해야 하는데, 이 또한 사례관리 수행팀의 업무임

■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관리<sup>2)</sup>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복지자원 정보 관리의 목적은 검색 용이성 확보, 자원 현황 진단, 자원 사후관리의 체계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역사회 단위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지역사회에 산재한 공공 · 민간 복지 서비스 및 제공주체 정보를 표준화 · 체계화하여 관리하면, 자원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하여 간편하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 표준화는 지역 간, 공공과 민간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필수 요소임(이 때 원칙적으로 지역사회 범위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공동체로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둘째, 지역사회 단위에서 필요하지만 부족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빈번히 발생하는 욕구영역 및 이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유형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표준적인 서비스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지역여건에 따른 해당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파악해야 함
- 자원이 부족하거나 많이 사용되는 영역을 확인하면 자원 개발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셋째,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함

-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제공주체 및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변화된 내용을 확보하여 자료의 현시성을 유지해야 함
-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밑받침되어야 함

■ 한편, 최근 지역사회 단위 복지자원 정보는 사례관리를 위한 목적을 넘어서고 있음

○ 정부는 『정부 3.0』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DB를 민간과 공유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2) 일반적으로 복지자원 관리라고 하면 첫째, 자원의 개발(발굴), 둘째 자원 정보의 등록 및 사용, 셋째 자원의 사후관리를 통칭함. 이하에서는 둘째 내용, 즉 자원 정보의 관리 측면에서 복지자원 관리로 그 내용을 한정함.

- 이미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정보와 지역 단위 복지시설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복지로, www.bokjiro.go.kr), 각종 복지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보 역시 공개 중에 있음(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ww.w4c.go.kr-정부 3.0 서비스 맞춤 검색)
- 이외에도 공공이 확보한 민간 복지자원의 내용을 지역 내 주민 및 관련기관과 공유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자원개발 및 활용에서 민·관의 협력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임
- 복지자원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단위 복지 공급의 격차, 지역단위 복지의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 지역 내 복지자원 현황에 대한 파악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서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함
- 한편, 복지의 정보화<sup>3)</sup>를 통해서 복지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복지자원 관리에 대한 최근의 관심 증가를 고려하여, DB화된 복지자원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문제점, 개선내용 및 개선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 각종 복지자원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구축된 복지자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업무 일선 담당자나 연구자 모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복지자원 관리 자체는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업무가 아니므로 일선에서는 개발한 자원의 관리방법, 확보한 정보의 활용 방법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DB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접하기 어려움
  - 이에 복지자원 통합DB를 통한 자원 정보 관리를 소개하면서, 자원관리 체계 개선의 의의와 향후 관리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 여기서 소개하는 복지자원 통합DB는 2013년 1월 구축되었으며, 관리방안 및 DB 개선에 대한 연구와 정비사업이 2014년 진행되었고, 2015년 1월부터는 개선된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음

## 2. 복지자원 통합DB의 구조와 기능

- 복지자원 통합DB는 산재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을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각종 자원관리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임
  - 복지자원 통합DB는 공공자원 DB와 민간자원 DB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Data Warehouse를 지칭하며, 이때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은 제공주체의 속성 및 서비스 재원(財源)에 따라 구분
    - 공공자원 DB: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범정부복지사업, 지자체개별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시설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보건소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시스템 간 연계처리되어 복지자원 통합DB 내에 유입
    - 민간자원 정보: 지역단위에서 지자체담당자, 드림스타트담당자가 개발 또는 확인한 정보를 DB에 각 담당자가 직접 등록한 지역자원, 중앙자원관리자(현재는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가 전국단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복지단체 정보를 등록한 전국자원으로 구분하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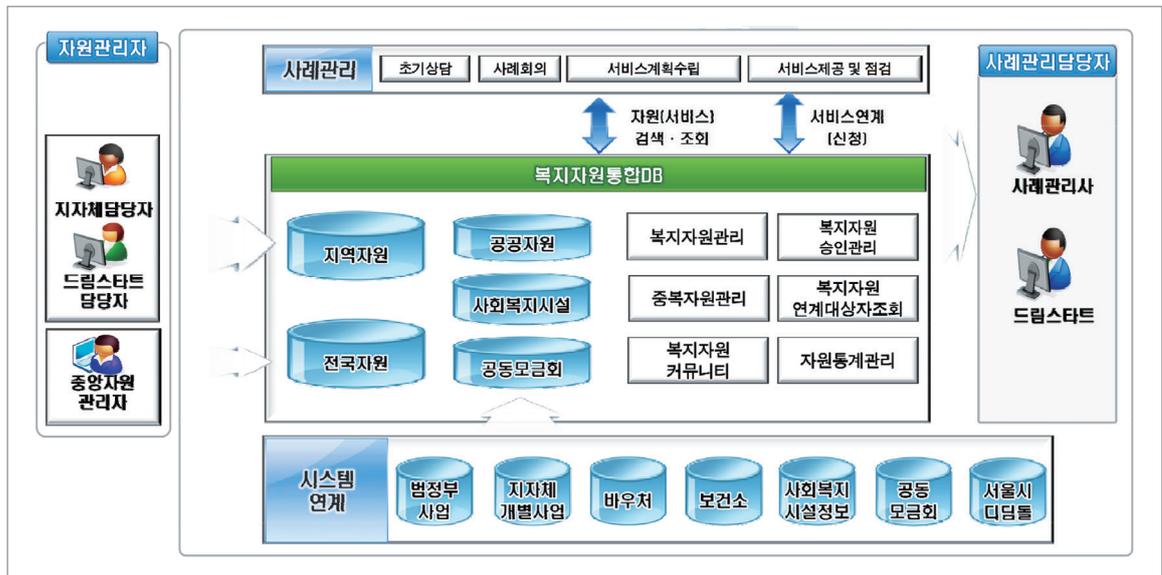
3) 정영철·임효경·문승삼·장윤영(2009).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 현황 및 정책 적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그 외 복지자원 정보: 이들은 민간자원에 해당하지만 별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가 복지자원통합DB에 연계 ·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정보, 서울디딤돌사업 정보가 해당함<sup>4)</sup>
- 직접 등록하는 자원은 복지자원 통합DB 내 데이터 관리 구조를 따라 정보 관리가 이뤄지지만, 연계처리되는 자원은 각 연계시스템의 관리 구조 내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의 현행화, 정보관리의 표준화가 용이하지 않음

○ 복지자원 통합DB 내에서 복지자원은 제공주체와 제공서비스로 구분되며, 단일 제공주체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주체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민간기관 ·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말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서비스로 명명함

[그림 1] 복지자원 통합DB의 구조와 기능



주: DB 내에서 민간자원 정보는 지역자원과 전국자원으로 구분되며, 외부 정보 연계 자료 중 서울시시디딤돌 정보는 지역자원으로 구분됨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p.70, p.255를 재구성.

- 사례관리 단계에서는 필요한 서비스 및 이에 접촉하기 위한 제공주체 정보를 복지자원 통합DB를 통해 확인하고 서비스를 연계함
  - 필요한 자원(제공주체 및 서비스)이 없어, 이를 신규로 개발할 경우에는 자원 등록이 선행됨
  - 공공영역을 통해 이뤄지는 서비스 연계이력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공공영역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 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DB와 행정시스템의 연계)
- 지역단위에서 현재 개발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원(제공주체 및 제공서비스)과 서비스 연계 이력을 종합하여, 지역단위 자원 활용 정보에 대한 통계 생산 가능
  - 지역에서 자주 활용되는 서비스의 종류, 수요-공급이 불일치하는 서비스 영역을 도출하는 등 자원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4) 2015년 상반기부터는 자원봉사 관련 정보(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가 연계되기 시작하였음.

- 체계적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복지자원 통합DB의 구축 후 자원 정보량(量)은 급증하고 있으나, 자원 활용은 저조

〈표 1〉 복지자원 현황('14년 12월말 현재)

수집 시스템	자원구분	사용자 및 연계시스템	확보자원	자원(서비스) 수
자체등록	전국자원	중앙자원관리자	광역단위 후원자원 정보	121개 기관
	지역자원	지자체 복지업무담당자	지역단위 민간자원 정보	약 12만 기관 (22만여 건)
		서울디딤돌시스템	광역단위 민간복지 자원 정보	256기관 (11,770건)
	드림스타트	지자체 드림스타트 실무자	드림스타트 연계자원 및 서비스	32,699개 기관 (81,131건)
복지자원보유 DB 연계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별 연계서비스	17개 지회 (85건)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민간시설정보 및 제공서비스 정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1만여 기관
	공공자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개별복지사업 정보	범정부 복지사업 350건 지자체 개별사업 5,896건
		지역보건으로 정보시스템	지역별 보건소 정보	255개 기관 (5,857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바우처	바우처 제공기관 정보 및 바우처 정보	25,927기관 (65,634건)	

주: 원 자료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기준에서 드림스타트를 복지자원보유 DB 연계로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지역단위 등록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안내」 p. 70을 재구성

- 2011년 구 통합사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공주체의 수는 20,416개였다가, 2012년 41,089개로 증가하였으며, 복지자원 통합DB가 구축된 이후인 2013년 7월에는 16만 5천여 개, 2014년 7월에는 18만 2천여 개가 등록됨<sup>5)</sup>
  - 자원 정보 급증은 외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공 복지자원 정보를 연계하면서 급증하였으며,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신규로 발굴한 자원을 복지자원 통합DB에 적극적으로 등록한 결과임
  - 같은 시기 등록된 제공서비스는 52만 5천여 건으로 1개 제공주체 당 2.9개의 서비스가 등록됨
- 그러나 등록된 서비스에 사례를 연계한 것은 전체 중 35.4%에 해당하는 18만 6천여 건으로 한정됨<sup>6)</sup>
  - 44천여 건이 1개의 연계이력을, 19천여 건이 2개의 연계이력을, 12천여 건이 3개의 연계이력을 가지고 있음
  - 지자체발굴자원, 드림스타트자원과 같이 자체 등록한 서비스는 연계비율이 비교적 높아 각각 53.3%, 84%에 달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지자체개별사업, 바우처, 서울디딤돌 등 외부자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비율은 낮은 편임

■ 복지자원 관리 구조 및 활용 문제 진단<sup>7)</sup>

- 복지자원 통합DB의 형식적 이용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5) 동일한 제공주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등록된 경우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제공주체의 수는 이보다 적음.  
 6) 2014년 7월 30일 기준 자료를 활용한 결과임.  
 7) 주요 문제 상황은 2015년 1월 시스템 재구축 및 정비 이전 기준으로 설명함.

- 자원 등록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이 부재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회의 후 필요한 서비스를 사후적으로 확보하여 DB에 등록한 후 연계 처리하거나, 기존 확보한 자원 내용을 등록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극단적인 경우, 일부에서는 평가를 위한 자원 정보 입력의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였음<sup>8)</sup>
- 그 결과 복지자원 등록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음
- 보유자원 대비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정보의 중복, 정보의 낮은 정확도를 지적할 수 있음
  - 지역의 동일한 제공주체가 수 회 등록된 경우, 자료 연계를 통해 입수한 서비스 정보가 불명확하여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기존 DB에 등록된 정보 중에서도 불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정보, 유효한 기간이 지난 정보 등에 대해 최신 내용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
- 문제 원인으로는 시스템적 문제, 관리지침의 부재, 분류체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시스템적 문제는 각 정보시스템에서 유입된 제공주체 정보가 DB 내에서 실질적으로 단일한 값을 갖지 않아 발생하는 제공주체 중복 문제, 연계 DB를 이용한 제공주체에 대해 자체등록 단계에서 서비스 등록이 제한되는 문제로 인해 동일한 제공주체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누가 자원관리를 담당해야 하는지, 등록하여 관리할 자원은 어떤 것인지와 같은 주요 업무를 규정하는 관리지침이 미흡함
  - 복지 욕구 및 지원유형의 2단계로 구분되는 기존 서비스 분류체계 내에서 이용자의 입력 혼선이 있어, 정보 등록의 편이성과 자원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지 못하는 문제 발생

### 3. 2015년 복지자원 통합DB 주요 개선 내용

■ 복지자원 통합DB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개선, 관리지침 규정, 분류체계 개선 등을 실시하였음

- 자원(제공주체) 정보 원천 간 중복 차단 및 제공서비스 등록 허용
  - 동일한 제공주체는 정보 원천과 무관하게 통합DB 내에서 단일한 key 값을 가지게 하였으며, 직접 자원을 등록할 때 단일 제공주체에 제공서비스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공주체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였음
- 연계자료 정비를 통한 자원 표준화
  - 외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원 정보는 통합DB 유입단계에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여, 외부 연계 DB의 서비스 등을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선택하여 유입하는 기능을 구현함
- 복지자원 관리 · 운영 지침 규정 신설하여, 자원관리자를 자원관리책임자와 자원관리실무자로 구분하고, 책임자의 정보 공유 및 자원 사후관리 업무를 명확히 함. 또한 등록대상이 되는 제공주체 및 제공서비스와 이를 등록할 때의 지침을 규정

8) 2015년(2014년 실적) 지자체통합동평가에 '신규자원 및 서비스 발굴노력'을 지역복지기반 확충 영역의 지표로 제시하고, 서비스 등록 건수와 서비스 연계 건수를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종 지표 선정에서는 제외하였음.

○ 기존 제공주체 및 서비스 분류 체계를 개선함

- 제공주체를 자원 정보의 원천과 무관하게 제공주체 속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역사회 내 공적 정보와 비교하면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개인 구분 코드를 신설하여 정보 관리 용이성 확보 및 정보 입력 최소화

〈표 2〉 제공주체 분류체계 신·구 비교

민간자원구분	자원관리구분	자원제공주체구분	제공주체구분	시설기관구분	시설기관상세구분
개인사업자 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모임 종교단체	지역자원	지자체발굴자원 드림스타트자원 서울시디딤돌	개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세부유형 반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복지재단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병의원	
	공공자원	법정부복지사업 지자체개별사업 바우처 보건소		비공식단체 종교시설 협회및단체 기타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2014년(p.237), 2015년(p.258) 재구성.

- 제공서비스 분류체계 변경: 기존 9개 대분류 46개 중분류를 9개 대분류 51개 중분류로 변경함. 구분이 불명확한 중분류를 통합하여 등록자의 서비스 분류 혼선을 최소화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영역의 서비스 분류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록 불편을 줄였으며, 비용지원 항목(9개 대분류 각각)을 신설함. 이 때 중분류 제공서비스는 관련 욕구 문제의 처리 단계에 따라 배치하였음. 또한 '권익보장 및 법률' 대분류를 안전 및 인권에 대한 교육,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반영한 대분류 '안전 및 권익보장'으로 변경

〈표 3〉 복지자원 통합DB 서비스 분류체계의 신·구 비교

현행 DB의 서비스 대분류	중분류 갯수	서비스 대분류 체계 개편(안)	중분류 갯수
고용 및 직업	(6)	일 자리	(6)
주거지원	(4)	주 거	(3)
일상생활 지원	(8)	일 상 생 활	(7)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6)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6)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지원	(6)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6)
보호 및 돌봄·요양	(5)	보호 및 돌봄·요양	(6)
보육 및 교육	(5)	보육 및 교육	(8)
문화 및 여가	(4)	문화 및 여가	(5)
권익보장 및 법률	(2)	안전 및 권익보장	(4)
9개 대분류	(46)개 중분류	9개 대분류	(51)개 중분류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2014년(p.164), 2015년(p.162)

- 제공서비스명 기능을 도입하여 서비스 등록 빈도가 많은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표준적인 서비스명을 도입하여 관리함으로써, 분류체계(대분류, 중분류) 이후 단계의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 서비스 Stock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제공서비스명 유형별로 지역사회 단위의 서비스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서비스 연계 업무 처리 시 자동적으로 중·감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커뮤니티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자원관리를 위한 개별 지역 및 지역 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신설함

## 4. 복지자원 관리의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

- 여전히 지역 단위에서 복지자원 관리는 공공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쟁점을 양산하고 있음
  - 공공이 사례관리에 나섬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개발의 체계성 및 총량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영합(zero-sum) 게임 상황에서 공공으로 자원의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는 비판적 평가도 존재함
  - 지역 복지재단 등 시민이 주체가 되어 다른 시민을 돕는 복지 시스템의 실현에 공공이 밑거름을 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지역 고착화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비판도 있음
    - 민간에서는 행정 구역의 개념이 크지 않지만, 공공 · 행정 영역에서는 행정 구역 개념이 중요
  -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 영역은 관련하여 가지는 행정적 권한으로 인해 자원 개발 과정이 권력과 연결된 과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복지자원 통합DB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자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으로서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상황임
  - 통계 추출 기능, 커뮤니티 기능, 정보 일괄다운로드 기능 등이 구현되었으며,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공개 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 공공 기능을 확대하는 한 방법임
    - 자원정보의 표준화는 정보 공개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관련 정보의 공개는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자원 발굴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지역단위에서 공공과 민간의 표준화된 자원관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도 가능함
- 지역사회 자원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영역의 적극적 정보 공개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정보 표준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바우처정보시스템 등 여러 정보시스템에서도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집필자 | 정해식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 044-287-8250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 TEL 044)287-8000 | FAX 044)287-8052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